

Saint-Exupéry의 行動意義와 人間紐帶

金 炳 坤*

I. 序 論	IV. 連帶意識
II. 行動의 意義	V. 結 語
III. 友情의 예찬	

I. 序 論

Saint-Exupéry는 文人이기 이전에 고독과 위험과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극도의 苦行인 行動 속에서 試鍊을 겪은 초기 航空路의 開拓者의 한 사람이다. 그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자기가 行動의 世界에서 몸소 체험한 사실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作品은 곧 行動의 記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作品과 行動은 不可分의 관계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Saint-Exupéry는 내용이 없는 문학에 모멸감과 혐오감을 느껴, 그는 자기의 生活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면 쓰려고 들지 않는다. 특히 <Le petit prince> 같은 작품에서는 그의 상상력의 풍부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도 말이다. 사실 그의 작품에는 군데군데 抒情과 詩情이 무르녹아 있어 散文이라기보다는 詩라고 이름해야 할 정도로 극치의 美感을 불러일으키는 대목들이 많기도 하지만, 역시 그의 문학은 이런 까닭으로 하여 알찬 내용들이 그 주축을 이루며, 그 알찬 내용중에서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人類에게 주는, 그가 값비싼 경험에서 이끌어낸 普遍的 眞理, 다사로운 忠告와 敎訓, 즉 모든 人間關係에서 벗어지는 온 人類를 위한 普遍的인 건설의 모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研究는 그의 文學의 中心軸이 되어 있고, 그것의 산파역을 하고 있는 그의 行動의 發端과 展開 과정을 그의 작품을 토대로 하여 파헤쳐서 그 意義를 밝혀본 후, 앞에서 말한 보편적인 건설의 모랄 중에서도 그의 작품의 곳곳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友情의 문제를 분석·조명하고서, 나아가 이에서 發芽하여 發展한 連帶意識을 추출·부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목원대학교 불문과 조교수

Ⅱ. 行動의 意義

1926년 Saint-Exupéry 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Toulouse 로 향했다. 行動에의 첫 발걸음이다. 이에 앞서 그는 軍服務를 마친 후, Boiron 회사의 사무원으로 Saurer 트럭 회사의 外販員으로 生計 유지를 위한 일을 해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 직업들은 모두 그의 適性에 맞지 않았던 듯하다. 특히 트럭 外販員 시절에는 프랑스 전국을 누비고 돌면서도 18개월 동안에 겨우 자동차 한대를 판매한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정도였으니까. 그는 아마 여기서 자기의 生計를 유지하기 위한 平凡한 現實生活에서의 活動에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였으리라. 그래서 일종의 挫折感과 더불어 그러한 生活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J'en ai assez de ce Paris qui fait trop espérer et ne tient jamais rien.¹⁾

따라서 우리는 Saint-Exupéry 가 飛行의 行動으로 나서게 된 동기를 항상 제자리 걸음인 평범하고 진부한 小市民 生活에서의 탈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소위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 마을의 테두리 안에, 한정된 일터의 테두리 안에서 빙빙 맴돌면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판에 박힌듯이 고정된, 그리고 그 행동반경이 한정된 반복의 생활이다. 이것은 좀 巨視的 안목에서 본다면, 즉 人間生活의 外部的 位置에서 본다면, 일정한 굴레 속에 갇혀 돌아가는 것이나 진배없는 양상이다. 사람은 자기가 마련한 그 담장 속에 갇혀 돈이나 살림살이 따위에 대한 하찮은 걱정거리, 형편이 좀 순조로울 때의 오죽잖은 기쁨을 맛볼 뿐, 자기 밖의 다른 세계를 넘겨다볼 여유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애써 쌓은 담장 속에서 囚人의 삶을 이어나가는 데에 골몰해 있는 것이다. Saint-Exupéry 는 Terre des Hommes 에서 사람에게 이와 같이 판에 박힌 듯한 生活에서의 脫走를 역설하고서, 그로부터 人間의 靈魂은 해방되고 人間 자신이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글은 그가 처녀 비행을 하기 위해 터덜터덜 고물 배스를 타고 가면서 우연히 동승하게 되었던 출근길의 관리들을 두고서 그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내용이다.

Vieux bureaucrate, mon camarade ici présent, nul jamais ne t'a fait évader et tu n'en es point responsable. Tu as construit ta paix à force d'aveugler de ciment, comme le font les termites, toutes les échappées vers la lumière. Tu t'es roulé en boule dans ta sécurité bourgeois, tes routines, les rites étouffants de ta vie provinciale, tu as élevé cet humble rempart contre les vents et les étoiles. (.) Maintenant, la glaise dont tu es formé a séché, et s'est durcie, et nul en toi ne saurait désormais réveiller le musicien endormi, ou le poète, ou l'astromonomie qui peut-être t'habitaient d'abord.²⁾

1) Saint-Exupéry, Lettres de jeunesse, Gallimard p. 76.

2)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 148

사람은 本能的으로 무한정한 삶의 지속을 원하지만, 이 삶의 의의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人間은 유한한 삶의 과정을 맹목적으로 보내지 않으려면 그 의의를 애써 찾아내야만 한다. 따라서 하찮은 기쁨과 근심에 싸여 돌면서 安樂한 삶만을 渴求하던 人間도 어느 기회에는 자기의 삶 자체에 대한 懷疑를 느끼고, 그 의의를 追求하려 들게 된다. 이것은 人間의 本性에 잠재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일지도 모른다.

Saint-Exupéry는 역시 Terre des Hommes의 마지막 章에서, 스페인의 民兵上士가 이제껏 몸을 담은 경리 직원의 자리를 박차고, 自願入隊하게 된 내력을 혼자 추리하면서, 平凡한 小市民的 삶의 굴레에서의 脫走에 역시 삶의 의의를 부여하여, 우리의 見解를 보장해 주고 있다.

Il m'est venu quelques images pour m'expliquer cette vérité que tu n'as pas su traduire en mot mais dont l'évidence t'a gouverné. Quand passent les canards sauvages à l'époque des migrations, ils provoquent de curieuses marées sur les territoires qu'ils dominent. Les canards domestiques, comme attirés par le grand vol triangulaire, amorcent un bon inhabile. L'appel sauvage a réveillé en eux je ne sais quel vestige sauvage. Et voilà les canards de la ferme changés pour une minute en oiseaux migrateurs. (.) Qu'importe le lion si la vérité des gazelles est d'être ouvertes d'un coup de griffe dans le soleil! Vous les regardez et vous songez: Les voilà prises de nostalgie. La nostalgie, c'est le désir d'on ne sait quoi il existe, du désir, mais il n'est point de mats, pour le dire.³⁾

이와 같이 Saint-Exupéry는 아무래도 삶의 의미를 얻어낼 수 없는, 보이지않는 철망에 갇혀 맴도는 듯한 凡常하고 安易한 世界에서 脫皮하여 무언지 찾을 수 있는 광활한 世界로 향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일단 어디로든 떠나야만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비행사가 되는 길 이외에도 바다로 나가는 길, 미지의 지역의 探査, A. Martraux 처럼 異域으로의 向發 등, 술한 길들이 열려 있었을 것이었다. 어쩌면 이 많은 종류의 길 앞에서 그는 적잖이 망설였을 지도 모른다. Jules Roy는 Saint-Exupéry가 먼저 있었던 海軍學校 試驗에 낙방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바다를 무대로 한 작품을 남겼을 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역시 일리가 있는 論評인 것 같다.

Aurions-nous eu un second Conard si Saint-Exupéry n'avait pas obtenu une note éliminatoire en français au concours de L'Ecole navale? Peut-être.⁴⁾

그는 그러나 단연 비행의 길을 택하여 脫走를 감행한 것이다. 어쨌든 그는 일단 飛行士로서의 行動에 임하고나서 부터는 그 직업이 자기의 適性에 맞다는 사실을 이내 알아차렸을 뿐

3) Ibid, p. 249.

4) Jules Hoy, passion de Saint-Exupéry, Gallimard p. 30.

더러 하늘에 있는 동안은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平靜을 느끼고, 그의 어디에서도 얻어 볼 수 없는 위안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飛行의 行爲 자체에서조차도 무한한 歡喜와 快感을 만끽하게 된다.

Saint-Exupéry s'est grisé du vol comme d'une sorte de surréalisme externe.⁵⁾

앞에 든 Georges Mounin 의 이 寸評은 꽤 정곡을 찌르는 듯한 表現이라고 생각된다. 飛行의 世界는 어쩌면 非現實의 超現實의 世界일 지도 모른다. 그것은 外部的 景觀부터가 地上에서는 접할 수 없는 神秘의 세계일 터이기 때문이다. Saint-Exupéry 는 처음엔 그저 한번쯤 경험해 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好氣心에 의한 젊음의 혈기로 여기에 발을 디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그 속에 발을 붙이고나서 부터는 그 독특한 飛行의 맛에 흠뻑 陶醉되어 버린 것이다. 아니 거기에 거의 미치다시피 되었을 지도 모른다.

비행기 아래 펼쳐진 계곡에 고이고이 물들어가는 황금빛 저녁노을, 별들의 도시들과 마을들로 가득찬 宇宙空間의 그지없이 아름다운 밤, 발밑에 내려다 보이는 아득한 지상에서 깜박이는 별들에게 비행기의 현등으로 信號를 보내면서 누리는 뿌듯한 만족감, 지상과 하늘의 별들이 강그리 沈默하였을 적에 神話의 구름 속에서의 명상에 젖는 맛, 高空에서는 한낱 生命의 자취도 없는 유성으로 보이는 地球의 삭막한 경치, 生命이 존재하지 않는 宇宙空間인 神話의 世界에서 돌아와 地上에 발을 붙이고서 人間과 그 손길들이 어루만진 형상들을 새로이 대하는 감각적인 맛, 現實世界인 地上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를 飛行의 行動으로 誘惑하였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飛行 자체에의 도취감과 만족감은 Saint-Exupéry 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다음 인용문은 機上에서 밤에 젖어들어가는 순간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 속된 세상의 자취가 불그레한 빛으로 물들면서 사라지려는 때야말로 비행사에게 있어서의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이다. <불가해한 비행에 대한 사랑>이란 表現을 노골적으로 쓰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있지만, 거의 육감적일만큼 절묘한 描寫로 인해 정작 그런 경험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도 그 경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직하다.

Mais tout cela m'est étranger, je vis dans le domaine du vol. Je sens venir la nuit où l'on s'enferme comme dans un temple. Où l'on s'enferme. Tout ce monde profane s'efface déjà et va disparaître. Tout ce paysage est encore nourri de lumière blonde, mais quelque chose déjà s'en évapore. Et je ne connais rien, je dis: rien, qui vaille cette heure-là. Et ceux-là me comprennent bien, qui ont subi l'inexplicable amour du vol.⁶⁾

5) George Mounin, l'espérance de l'homme (Les critiques de notre temps et Saint-Exupéry, Garnier p. 34)

6)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 212.

그의 處女作 <Courrier Sud>에서는 그 주인공인 Jacques Bernis의 입을 빌어 그는 비행에 성공하여 着陸에 임박한 지역에 대해 “征服(Conquête)”이라는 表現을, 機上에서 내려다 보이는 地上의 사람에 대해 “戰利品(butin)”이라는 表現을 서슴없이 쓰고 있다. 마치 전쟁의 무사가 異域의 領土를 戰取하고서 滿足의 情정에 이르러 있듯이 飛行의 行動에 대한 滿足感을 込込하는 表現이다.

Tanger, cette petite ville de rien du tout, C'était ma première conquête, c'était, vois-tu, c'était mon premier cambriolage. (.) Et tout à coup cette découverte merveilleuse: à cinq cents mètres du terrain cet Arabe qui labourait, que je tirais à moi, dont je faisais un homme à mon échelle, qui était vraiment mon butin de guerre ou ma création ou mon jeu. J'avais pris un otage et L'Afrique m'appartenait.⁷⁾

이러한 飛行에 대한 道義감과 滿足感은 한 걸음 더 나아가, Saint-Exupéry 자신이 하나의 “연장(outil)”이라고 일컫고 있는 비행기 자체에 대한 사랑의 경지로까지 이끌려 간다. 世間의 職業인이나 技能인이 그 職能의 수단인 자기의 도구나 연장을 자기 所有物 중의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수한 屬性이다. 그런데 Saint-Exupéry의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행동의 도구인 비행기 자체를 하나의 펄펄 살아 움직이는 生命體로까지 昇化시켜 實感과 共感을 동시에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Il se découvrait solidement assis dans le ciel. Il effleura du doigt un longeron d'acier, et sentit dans le métal ruisseler la vie: le métal ne vibrat pas, mais vivait. Les cinq cents chevaux du moteur faisaient naître dans la matière un courant très doux, qui changeait sa glace en chair de velours. Une fois de plus, le pilote n'éprouvait, en vol, ni vertige, ni ivresse, mais le travail mystérieux d'une chair vivante.⁸⁾

다음 글에서는 비행의 임무를 맡은 조종사로서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最大의 歡喜와 그 職能에서만 얻어낼 수 있는 고귀한 삶의 充溢感을 유감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극도의 호사를 누리는 絶對君主라도 百萬長者라도, 즉 地上에 머물러있는 어떤 至福의 存在라도 누릴 수 없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絶대적인 경지이다. 宇宙空間에서 障礙와의 對決로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다시 地上에 발을 디뎠을 때의 세상의 새로운 모습 역시 진실로 감동적일 것이다.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역시 피부로 느껴질 듯한, 손에 잡힐 듯한 표현이다.

Cette nuit de vol et ses cent mille étoiles, cette sérénité, cette souveraineté de quelques heures, l'argent ne les achète pas.

Cette aspect neuf du monde après l'étape difficile, ces arbres, ces fleurs, ces femmes, ces

7) Saint-Exupéry, courrier sud (pléiade) p. 18

8) Saint-Exupéry, vol de nuit (pléiade) p. 83

sourires fraîchement colorés par la vie qui vient de nous être rendue à l'aube, ce concert des petites choses qui nous récompent, l'argent ne les achètes pas.⁹⁾

이렇게 해서 Saint-Exupéry는 飛行의 진미를 체득하여, 그 자체에 沒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느 정도 거기에 종사한 후에 일찌기 다른 방면으로 전진하였을지도 모른다. 행동이 그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이었다 할지라도 다른 활동분야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실제로 그는 잠시 조종사 생활을 중단하고서 신문사의 특파원으로서의 경력을 가져보기도 하고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했으나 비행에의 애착만은 끝내 버리지 못했다. 그의 作品의 일부(Terre des Hommes)에서도 한 에피소드로 이야기되고 있거니와 그는 무려 다섯 차례나 목숨을 잃을 뻔한 추락사고를 당하였으나, 이 飛行에의 愛着은 하나의 癖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끈질기기도 변함이 없이 굳어져 종내는 飛行을 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특히 그의 마지막 무렵인 2次大戰時에는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軍當局으로부터 극력 만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애를 다 써서 기어코 飛行을 계속하다가 끝내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은 戰爭에의 참가 정신에서라기보다는 飛行 자체의 魔力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지 않을까? 어떤 熱情에 의한 것이었든지간에 전투에 참여하는 方法은 꼭 조종사로서의 役割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테니까 말이다. J.C. Ibert의 다음과 같은 論評은 우리의 이런 推論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Qu'il (Saint-Exupéry) ait été à payer de sa vie les idées qu'il avançait, nul ne le contestera. Mais qu'il ait vécu selon ces idées, voilà qui parait moins certain. Il suffit d'évoquer ses raids les deux plus importants se soldèrent hélas par des échecs et la manière dont il est mort pour que le doute naisse en nous.¹⁰⁾

Saint-Exupéry는 그를 끊임없이 魅了시키는 이러한 飛行中에 무한한 宇宙空間을 대하고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이미 딴 세계인 지상을 초연히 굽어보면서 俗世의 온갖 雜念을 잊고 고독 속에 잠긴 修道士와도 같이 人間과 地球와 宇宙에 대해 차분한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기가 애써 쌓은 담장에 갇혀 世事에 마냥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飛行人에게만 부여된 특전일지도 모른다.

Puis, comme rien ne vacillait, ni ne vibrat, ni ne tremblait, et que demeureraient fixes son gyroscope, son altimètre et la régime du moteur, il s'étira un peu, appua sa nuque au cuir du siège, et commença cette profonde méditation du vol, où l'on savoure une espérance inexplicable.¹¹⁾

9)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 158

10) J.C. Ibert, Saint-Exupéry, Editions universitaires p. 102.

11) Saint-Exupéry, vol de nuit (pléiade) p. 84.

이제 1929년에 출판된 Saint-Exupéry의 處女作인 <Courrier Sud>로 눈을 돌려보자. 이 작품은 그가 Cap Juby의 孤立生活에서 돌아와 Argentine으로 向發하기 전에 출판된 것으로 그의 조종사로서의 수련생활과 사막의 경험 등을 소재로 한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의 애송이 비행사 Saint-Exupéry를 그대로 들여다 볼 수가 있다.

Courrier sud (1928) nous le montre à une époque de mue.¹²⁾

그러나 이 작품은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해 가장 소설적 要素를 많이 포함한 것이어서 그가 겪은 경험이 여기에선 줄거리의 核心的 역할이 되고 있지는 않다. 이 小説은 人間이 宇宙空間에서 자기가 사는 天體와의 접촉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路線 飛行士인 이 小説의 主人公 Jacques Bernis는 우편물을, “목숨보다도 貴重한 우편물(Courrier plus précieux que la vie)”¹³⁾을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나르고 있다. 그가 일단 조종석에 자리 잡으면 그의 생명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닌 것이다. 그는 많은 人間關係의 중계역할을 맡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막연히 깨닫는다. 그는 자기에게 뭐 대단한 權能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서, 슬한 사람들의 喜怒哀樂을 안은 우편물이 반드시 도착해야만 한다는 유일한 執念만을 지니고서 行動에 임하고 있다.

이 역시 비행하는 行動 자체에의 沒入이다. 여기선 그 위험한 行動의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가 무엇을 위하여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Saint-Exupéry의 작품의 알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의 思想과 모탈은 飛行의 경력에 쌓임에 따라 차츰 성숙하여 정립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 든 비행중의 명상과 사막의 고독 속에서의 명상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엔 이것의 알찬 결실인 友情과 연대 의식을 추구해 보기로 하자.

Ⅲ. 友情의 예찬

Saint-Exupéry의 작품에는 인간의 사랑·우애에 관한 테마가 군데군데 나타나 어느 것보다 더 두드러진 陽刻의 무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 동료의 友情에 관해 이 작가가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언급한 작가는 없으리라. Saint-Exupéry에 있어 飛行士라는 직업은 友情을 길러내고 발견해낸 더할나위 없이 좋은 직업이었던 것 같다. Pierre de Boisdeffre는 Saint-Exupéry의 倫理學이 이 友情 위에 基礎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Si Gide est un écrivain de XX^e siècle, Saint-Exupéry, lui est un témoin complet du XX^e

12) P. Chevrier, Saint-Exupéry, Gallimard p. 48

13) Saint-Exupéry, Courrier Sud (Pléiade) p, 12

siècle, par sa vie d'abord, par son éthique ensuite, fondée sur la fraternité humaine.¹⁴⁾

이것은 이미 Nietzsche 的이라는 定評이 붙어있는, 따뜻한 人情의 흐름과는 거리가 좀 먼 듯한 <Vol de nuit>에서부터 소홀하지 않게 다루어져 있어, 作品의 흐름에 調和와 潤澤을 부여하고 있다. <Vol de nuit>에 대한 R.M' Albérés의 다음과 같은 論評은 역시 이러한 면을 지적해 주고 있는 듯하다.

Apologie un peu lourde, un peu trop Nietzchéenne. Peut-être de la façon de mener les hommes. Elle est sauvée, le plus souvent chez Saint-Exupéry, par le goût de la fraternité.¹⁵⁾

하나의 公益事業을 기어코 승리로 이끌려는 執念에 사로잡혀 사람을 몹시 엄격하게 다루는 품으로 보아, 여느 人情을 완전히 상실한 冷酷漢으로 여겨지는 Rivière 역시 그 부하에 대해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는, 남모를 우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Rivière se découvrait une grande amitié pour cet homme, que chargeait aussi le poids de la nuit. Un camarade de combat, pensait Rivière. Il ne saura sans doute jamais combien cette veille nous unit.¹⁶⁾

그는 밤의 航空網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밤샘을 하면서 자기의 한몫을 떠맡고 있는 비서에게 이와 같이 남모를 길고 무거운 우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이 다같이 인류 복지를 위한 夜間 航空網의 개설이라는 하나의 거창한 작업을 두고 투쟁하는 전사로서 느끼는 그러한 友情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싸이든 友情은 Rivière가 막바로 犧牲을 強要하는 듯한 조종사들과의 사이에서도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나타난다. Rivière와 조종사들은 하나의 바탕에 자리잡고서 말로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짙은 友情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Pourtant, dans cette lutte, une silencieuse fraternité liait au fond d'eux-mêmes, Rivière et ses pilotes. C'étaient des hommes du même bord, qui éprouvaient le même désir de vaincre.¹⁷⁾

人間과 사물 또는 生活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천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각 個體들 사이에는 어떤 關係라는 것이 따르기 마련이다. 人間이 孤獨에서 벗어나 그 삶을 豐饒하게 하려면 이 關係를 더욱 긴밀히 증진시키고, 거기서 뚜렷하고 密度가 강한 意識을 얻어내야만 한다. Saint-Exupéry는 하나의 métier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人間關係에서 이 강한 密度의 意識을 끌어내고 있다.

14) Pierre de Boisdeffre, les écrivains français d'aujourd'hui,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 19.

15) R.M. Albérés, Saint-Exupéry, Edition Albin Michel p. 52.

16) Saint-Exupéry, Vol de nuit (pléiade) pp. 102-103.

17) Ibid, p. 111

앞의 작품 〈Vol de nuit〉에서 이렇게 발아한 Saint-Exupéry의 사랑과 友情은 드디어 〈Terre des Hommes〉에 이르러 거의 전작품을 통해서 무르익어 넘쳐 흐른다. 물론 이것은 부유하거나 권세있는 자에게 따르기 마련인 追從者로서의 關係에서 성립되는 友愛와는 전혀 다른, 行動人의 동료들 사이에 오가는 진정한 그리고 고귀한 사랑이며 友情이다.

飛行이라는 Métier를 통하여 同苦同樂하던 그 친밀한 동료들 줄지에 잃은 것은 “직무상의 질서”에 따라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잃어진 友情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잃어진 사람 자체의 문제보다 우정 자체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Rien, jamais, en effet, ne remplacera le compagnon perdu. On ne se crée point de vieux camarades. (.) On ne reconstruit pas ces amitiés-là. Il est vain, si l'on plante un chêne, d'espérer s'abriter bientôt sous son feuillage.¹⁸⁾

여기서는 飛行의 métier라는 媒介를 통해 길러진 友情을 상대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各樣各색의 萬人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友情을 상대로 하는 표현임을 엿보게 한다. 특히 이 此喩가 얼마나 간략하며 含蓄性이 있는가? 人間은 잃어버린 거의 모든 것을 회복하거나 대신할 수 있지만, 술한 세월의 堪耐와 享有를 함께 해온 關係에서 태어난 友情이야말로 일단 잃어지면 단번에 다른 것으로 매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Saint-Exupéry는 Métier에 의해 결합되어 길러진 이 友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임을 같은 페이지에서 확고하게 강조한다. 金錢萬能의 풍조에 젖은 現時代엔 거의 무엇이나 財貨로 얻을 수 있겠지만, 이 友情만은 절대로 사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On n'achète pas l'amitié d'un Mermoz, d'un compagnon que les épreuves vécues ensemble ont lié à nous pour toujours.¹⁹⁾

사람이란 다 거만한 에고이즘 속에 몸을 도사리고서, 자기 혼자서만 사물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법이다. 共同의 作業을 앞에 둔 共同의 투쟁이 文明을 創造하고 文明을 正當화시킨다. Saint-Exupéry가 같은 Métier의 동료들 특히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文明이란 언제나 사람들의 결합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Métier는 이러한 友情을 媒介로 하여 사람을 결합시킨다는 게 무엇보다 위대한 점인 것이다!

Telle est la morale que Mermoz et d'autres nous ont enseignée. La grandeur d'un métier est, peut-être, avant tout, d'unir des hommes: il n'est qu'un livre véritable, et c'est celui des relations humaines.²⁰⁾

18)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p. 157-158.

19) Ibid, p. 158.

20) Ibid, p. 158.

人間에게는 各樣各색의 豪奢가 있다. 흔히 富貴榮華에서 그 대표적인 事例를 찾을 수 있겠지만, Saint-Exupéry는 이런 종류의 호사를 전부 쓸모 없는 것으로 돌리고서, 진정한 의미의 호사란 人間關係의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人間關係의 호사란 물론 友情으로 이루어지는 호사를 지칭할 터이다. 人間關係를 얼마나 중시하며 그것의 참맛을 벅차게 누리는 표현인가?

하나의 Métier를 중심으로 하여 맺어진 友情은 그들의 作業場所와는 天壤之差로 격리된 Paris의 遊興街에서조차 그들을 연결하고 있던 場所로 퍼뜩 意識이 옮겨지면서 강렬하게 솟구친다. Saint-Exupéry와 그 동료 Mermoz가 유흥으로 밤샘을 한 후, 훗날 동이 터오는 무렵이 오자, 그 시각에 수 만리 밖에서 작업에 열중할 동료들의 움직임이 눈앞에 그려보다가, 자기네들의 경망한 歡樂에 대하여 일종의 悔恨에 사로잡히면서 이것을 媒介로 두 사람의 友情이 더욱 공고히 결속되고, 또 그것은 동시에 눈앞에 그려지는 동료들에게까지 서슴없이 미쳐간다.

Je me souviens d'une nuit de Paris où Mermoz et moi ayant fête, avec quelques amis, je ne sais quel anniversaire, nous nous sommes retrouvés au petit jour au seuil d'un bar, écoeurés d'avoir tant parlé, d'avoir tant bu, d'être inutilement si las, mais comme le ciel déjà se faisait parlé pâle, Mermoz burusquement me serra les bras, et si fort que je sentis ses ongles. «Tu vois, c'est l'heure où à Dakar . . .» C'était l'heure où les mecanos se frottent les yeux, et retirent les housses d'helices, où le pilote va consulter la météo, où la terre n'est plus peuplée que de camarades. (.) «ici, quelle saleté . . .» acheva Mermoz.²¹⁾

이제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Saint-Exupéry가 그렇게도 중히 여겨 讚揚하고 있는 友情은 한결같이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왔다. 그 共通點이란 물론 하나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여 結束된 동료로서의 紐帶意識을 背景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까이 있음으로, 來往이 잦음으로써 자연히 親分이 두터워지는 그러한 사이에서 태어나는 友情과는 그 근본부터가 현격히 다른 것이다.

그는 이러한 友情을 작품 위에 陽刻의 무늬처럼 두드러지게 드러내 놓은 후에 <Terre des Hommes>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정리했음직한, 분명히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을,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定義를 내린다.

사랑이란 두 에고이즘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된 공통의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에 출현하는 두 意志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동료라는 것은 같은 운명에 실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땀과 피를 흘리며 나아가는 사람이며, 이 關係에서 진정한 友情은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두고 함께 전진할 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우정이

21) Ibid., p. 249.

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Liés à nos frères par un but commun et qui se situe en dehors de nous, seulement nous respirons et l'expérience nous montre qu'aimer ce n'est point nous regarder l'un l'autre, mais regarder ensemble dans la même direction. Il n'est de camarades que s'ils s'unissent dans la même cordée, vers le même sommet en quoi ils se retrouvent.²²⁾

우리는 Saint-Exupéry의 사랑과 우정의 의미가 여기에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는 간략한 말로써 집약되어 있음을 확연히 알아차릴 수가 있다. 특히 경험이 이러한 眞理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 주의를 돌려보면 여기에서의 경험이란 역시 비행사로서의 자기 경험을 지칭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것은 물론 자기의 行動에서 얻어진 眞理라는 標榜이 된다.

이 友情의 특징이 어떤 紐帶感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留意해 본다면, 이 概念이 좀더 확대·진전되어 人間の 連帶意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넘겨다 볼 수가 있다. 다음에는 이것을 추적해 보기로 하자.

IV. 連帶意識

人間에게는 항상 어떤 共同體에의 가담을 거부하고, 자신의 利益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욕망을 제한당하는 規則 따위의 강제를 받을 적에는 이에 反抗하는 個人意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모든 人間들에게 內在할 수 있는 性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Saint-Exupéry는 行動에서 이끌어낸 자신의 眞理를 앞세우고 이러한 個人的 性向을 일체 排擊하고, 人間이란 다 어떤 關係로든지 하나의 共同體에 얽힌 “관계의 그물(réseau de liens)”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人間の 각자가 지니고 있어야 할 連帶意識을 일깨워 주고 人間이란 결국 孤立된 個體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간에 하나의 共同體를 根幹으로 하여 그 한낱의 가지로서 存在한다는 것이다.

L'action, en nous situant, nous permet de découvrir la véritable nature des liens qui unissent les hommes, et d'en vérifier constamment la solidarité.²³⁾

Saint-Exupéry는 2次大戦時 美國으로서의 亡命 길에 오른 鬻戰에서 자기의 位置를 祖國과 친구들의 뉘 수 없는 關係하에 두고 그와의 紐帶感 내지 連帶意識을 새삼 실감하는 것이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의 것들과는 절연되어 있는 듯하지만, 자기에게 얽힌 “관계의 그물”은 여전히 존립해 있기 때문이다.

22) Ibid., p. 252.

23) J.C. Ibert, Saint-Exupéry, Editions universitaires p. 50.

La France, décidément, n'était pour moi ni une déesse abstraite, ni un concept d'historien, mais bien une chair dont je dépendais, un réseau de liens qui me régissait, un ensemble de pôles qui fondait les pentes de mon coeur. J'éprouvais le besoin de sentir plus solides et plus durable que moi-même ceux dont j'avais besoin pour m'orienter. Pour connaître où revenir. Pour exister. En eux mon pays logeait tout entier et vivait par eux en moi-même.²⁴⁾

각 個人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幸福을 추구할 權利가 있어, 各者는 最善의 그것을 갈망하면서 자기의 갈길을 묵묵히 걸어 나간다. 다시 말하자면 各者는 他者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 자기 본위의 生活態度를 堅持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追求하는 幸福을 박차고 犧牲으로써 어떤 큰일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凡俗한 人間이 어떤 비상한 순간에 이제껏 잠재되어 있었던 偉大한 人間으로 脫皮한 경우이다. Saint-Exupéry는 이러한 偉大한 人間을 個人과 대립된 意味로서 大文字로써 L'Homme라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崇高한 人間은 대개 共通의 危險에 처했을 때 태어나 오직 자기의 現存(présence)에 戟刺되어 그의 同類를 생각하고, 자기의 이웃을 구하려고 발을 벗고 나서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자기와 동류의 이웃이 하나의 共同體에 딸렸음을 인지한 連帶意識의 發露에 基因한다.

On chemine longtemps côté à côté, enfermé dans son propre silence, ou bien l'on échange des mots qui ne transportent rien. Mais voici l'heure du danger. Alors on s'épaule l'un à l'autre. On découvre que l'on appartient à la même communauté. On s'élagit par la découverte d'autres conscience. On se regarde avec un grand sourire. On est semblable à ce prisonnier délivré qui s'émerveille de l'immensité de la mer.²⁵⁾

Saint-Exupéry의 行動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룩한 關係로 인하여 人間을 形成하게 된다. 이 關係는 그것이 個人主義的인 無秩序 狀態에다 가하는 桎梏과 拘束力으로 인해 결국 人間의 정신적 進歩를 배양하고, 人間이 인간다운 人間이 되도록 부추겨 준다. 여기에 Saint-Exupéry가 人間關係를 특히 重視하고 讚揚하는 커다란 理由가 있다. 결국 人間이란 社會의 動物이어서 각 個人은 그물처럼 서로 얽혀진 相互交涉의 “관계의 한 매듭(Noeud de relations)”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homme n'est qu'un noeud de relations. Les relations comptent seules pour l'homme.

Le corps, vieux cheval, on l'abandonne. Qui songe à soi-même dans la mort? Celui-là, je ne l'ai jamais rencontré. .²⁶⁾

이것은 Saint-Exupéry가 2次大戰 時에 司令部와도 連絡이 끊긴 작전부대의 一員으로 출격하

24) Saint-Exupéry, Lettre à un otage (pléiade) p. 395.

25)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 159.

26) Saint-Exupéry, Pilote de guerre (pléiade) p. 347.

여 機上의 명상에서 吐露한 말로, 하나의 共同體에 血脈처럼 얽힌 한 個人이 共同體를 위하여 대결할 적에 결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個人的 죽음을 꺼리지 않는다는 個人을 초월한 人間의 眞實을 드러내 주고 있다.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무시한 個人은 存立할 수 없다는 結論이거니와, Saint-Exupéry의 세계에서는 外部世界나 他者들과 절연한 孤立的 人間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의 人間을 그 生存圈의 兪힘에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자기의 한 소속체의 一員으로서 그 有機體를 위하여 자기 몸을 돌보아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우선 그의 동료 비행사 Guillaumet의 證言을 살펴보자. 그는 酷寒이 몰아치는 안데스山脈 속에 내던져져서, 氷壁과 눈속을 헤매면서 죽음과 졸음과 추위와 마비와 주림과 싸우다가 마침내 힘이 다하여 몇 번이고 쓰러지고 실신하고 하면서도, 그의 꺼져들어가는 意識 속에서 항시 자기가 다른 사람과 한 그물에 매인 몸이란 사실을 自覺하면서, 그냥 누워서 잠들어 버리고 싶은 유혹을 애써 물리치는 것이다.

Tu résistais aux tentations. «Dans la neige, me disais-tu, on perd tout instinct de conservation. Après deux, trois, quatre jours de marche, on ne souhaite plus que le sommeil. Je le souhaitais. Mais je me disais: Ma femme, si elle croit que je vis, crois que je marche. Les camarades croient que je marche. Ils ont tous confiance en moi. Et je suis un salaud si je ne marche pas.»²⁷⁾

Guillaumet는 오직 他者를,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必死의 힘을 다하여 氷壁과 눈위를 걸었던 것이다. 이것은 필시 평시에 나타나는 自我와 他者와의 무게의 顛倒이다.

이번에는 Saint-Exupéry 자신이 Guillaumet의 경우에 못지 않은 死境 속을 헤매면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로 얽힌 이런 紐帶意識을 確認한다. 廣大無邊한 불별이 살인적으로 퍼붓는 沙漠 한 가운데서 목이 바삭바삭 타 들어가는 무서운 갈증과 주림과 허기와 싸우면서 며칠 동안을 헤매는 것이다. 幻覺과 錯亂에 시달리는 가물거리는 意識 속에 떠오르는 가족의 눈, 동료·친지들의 눈이 지칠대로 지쳐버린 육신을 그만 내던져버리고 싶은 衝動을 가까스로 억제한다. 鬭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 조난자는 바로 그들이니까.

«Si vous croyez que c'est sur moi . . .» oui, oui, voilà qui est intolérable. Chaque fois que je revois ces yeux qui attendent, je ressens une brûlure. L'envie soudaine me prend de me lever et de courir droit devant moi. Là-bas on crie au secours, on fait naufrage! c'est un étrange renversement des rôles, mais j'ai toujours pensé qu'il en était ainsi.²⁸⁾

실로 役割의 顛倒이다. 즉 立場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遭難者는 遭難者 자신이 아니고,

27)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p. 163-164.

28) Ibid., p. 223.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나의 것인 내 肉身은 이미 내가 아니고, 나를 하나의 中心으로 하여 엮어매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遭難者들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그의 동료 Guillaumet 가 증언한 경험에서도 나타나며, Saint-Exupéry 와 함께 沙漠의 포로가 된 prévot 도 역시 똑같은 심경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行動에서 얻어진 “普遍的 眞理”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Encore une fois nous découvrons que nous ne sommes pas les naufragés. Les naufragés, ce sont ceux qui attendent! Ceux que menace notre silence. Ceux qui sont déjà déchirés par une abominable erreur. On ne peut pas ne pas courir vers eux. Guillaumet aussi, au retour des Andes, m'a raconté qu'il courait vers les naufragés! Ceci est une vérité universelle.

Si j'étais seul au monde, me dit prévot, je me coucherais.²⁹⁾

自我에 연결되어 있는 他者를, 自我를 중심으로 하여 맺어져 있는 人間關係를 얼마나 중시하였기에 이러한 立場의 顛倒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他者와의 關係로 엮힌 人間간의 連帶意識의 極致를 충분히 感知할 수가 있다.

명백한 “관계의 그물”에 얽혀져 있는 동료들 사이에는 동정이나 감사의 말따위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 人間關係가 一體化되어 있다. Saint-Exupéry 는 死境에 처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동료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두들 하나의 밀통을 공유하고 있는 한 나무의 가지들이므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義務로 받아들여지니까.

Je n'ai jamais entendu le naufragé remercier son sauveteur. (.) De quoi d'ailleurs l'eussions-nous remercié? Il avait droit lui aussi à notre vie. Nous étions les branches d'un même arbre. Et j'étais orgueilleux de toi, qui me sauvais!³⁰⁾

Saint-Exupéry 는 Arras 上空을 정찰비행하고 돌아오면서 같은 任務를 띤 飛行隊 內에서의 자기 位置가 完全히 그 集合體의 한 分子로서의 그것이란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그가 소속된 共同體가 엮어놓은 關係에 의하여 그는 비행대와 막바로 一體感을 느끼는 것이다. 共同體는 나의 實體(substance)이며, 나는 바로 共同體이기 때문이다.

Mon amour du Groupe n'a pas besoin de s'énoncer. Il n'est composé que de liens. Il est ma substance même, je suis du Groupe. Et voilà tout.³¹⁾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共同體들 간의 一體感은 같은 關係로 그 속에서 같이 맺어지고 같이

29) *ibid.*, p.232

30) *ibid.*, p.252

31) Saint-Exupéry, *pilote de guerre (pléiade)* p. 356

참여하는 동료들과의 連帶意識으로 擴充된다. 그는 航空路의 비행을 하다가 殉職한 동료 Guillaumet 와 전투 비행중에 이미 戰死한 戰友들과 一體感, 나와 共同體와의 一體感을 이렇게 되풀이하여 강조한다.

Nous avons piloté sur les mêmes lignes, participé aux même créations. Nous étions de la même substance. Je me sens un peu mort en lui. (.) Je suis de Guillaumet, je suis de Gavaille, je suis de Hochedé. Je suis du Groupe 2/33. Je suis de mon pays.³²⁾

Saint-Exupéry는 앞에 인용해 본대로 沙漠 한복판에 遭難하여 의식 속에서 遭難者와 구조자의 立場을 전도해 가면서까지 사막과 투쟁을 계속하다가 죽음 직전에 베두인 隊商에게 기적적으로 구조된다. 베두인 사람은 그와 그의 동료 prévot를 쫓아낸 후, 적어도 당시의 極限狀況에 처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生命의 보화인 물을 그들에게 서슴없이 마시게 해 주었다. 이제까지 言語도 風習도 용모도 생활방식도 판연히 다른 異邦人으로 그들의 褊陋 속에 자리잡힌 자였으려면, 거기엔 이미 種族도 言語도 差別도 있을 수 없었다. 그 베두인 사람은 그들과 똑 같은 이 지구상의 한 人間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였던 것이다.

Quant à toi qui nous sauve, Bédouin de libye, tu t'effacera cependant à jamais de ma mémoire, je ne me souviendrai jamais de ton visage. Tu es L'Homme et tu m'aparais avec le visage de tous les hommes à la fois. Tu ne nous as jamais de visages et déjà tu nous as reconnus. Tu es le frère bien-aimé. Et à mon tour, je te reconnaitrai dans tous les hommes.³³⁾

여기서 “관계의 그물”로써 얽혀있는 狀況으로 말미암은 Saint-Exupéry의 連帶意識은 가정, 직장, 지방, 국가, 인종 등을 전부 초월하여 凡世界的인 凡人類的인 그것으로 서슴없이 進展·擴張되어 나간다.

人間은 누구나 없이 지구라는 한 遊星을 탄 同類라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이 同類意識으로 하여 지구상의 人間은 모두 같은 형제들이므로 다 같이 連帶感을 의식하고서 凡人類的의 福祉의 旗幟아래 相扶相助하면서 理想的의 文明을 創造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各文明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는 것은 통탄해 마지 않을 일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동료 등으로 제한된 關係하에 發芽한 Saint-Exupéry의 連帶意識은 중국엔 “人間 共同體”로 귀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Pourquoi nous haïr? Nous sommes solidaires, emportés par la même planète, équipage d'un même navire? Et s'il est bon que des civilisations s'opposent pour favoriser des synthèses nou-

32) Ibid., pp. 357-358.

33)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 243.

velles, il est monstrueux qu'elles s'entre-dévoient.³⁴⁾

이리하여 Saint-Exupéry는 夜間飛行中 高空에서 내려다 보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등불들을 내려다 보면서 이 등불 하나하나에 意識의 기적이 깃들고 있음을 실감하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상상만으로 顯示될 수 있는— 異域의 未知人과 交際하고 싶은 衝動에 사로잡힌다. 그 불의 주인이 어느 國民이든 어느 種族이든 상관하지 않고서 오직 人間의 불을 보고서 느끼는 간절한 念願이다. <Terre des Hommes>의 첫머리 부분이다.

Il faut bien tenter de se rejoindre. Il faut bien essayer de communiquer avec quelques-uns de ces feux qui brûlent de loin en loin dans la campagne.³⁵⁾

이렇게 人間의 의식이 깃든, 空中에서 보아선 별과 같은 불빛에도 그 주인인 인간들과 접촉하고 싶은 欲求를 간직하게 되는 Saint-Exupéry에게 전혀 生命의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沙漠이랄지 화석화된 숲이랄지 不毛의 산같은 경치는 실로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R.M. Albérès의 다음과 같은 評은 꽤 妥當性을 지녔다고 보겠다.

L'expérience de vol semble produire chez Saint-Exupéry la naissance d'un rêve et d'une angoisse intimes au tréfonds de son âme.³⁶⁾

V. 結 語

우리는 이제까지 行動人 Saint-Exupéry의 行動에 대한 意義를 그 發端과 그 展開過程을 살펴본 후, 그것에서 이끌어낸 것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우정의 예찬과 연대의식을 해부해 보았다. Saint-Exupéry는 우선 가정이나 직장 등 한정된 테두리 안에 갇혀 지내는 듯한 범상한 사람들의 日常生活에 실망과 염증을 느껴 視野를 넓이기 위해 飛行의 세계에 소위 “脫出”을 감행했고, 宇宙空間을 누비는 飛行에 일단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가 종내에는 이에 흠뻑 魅了되어 일종의 癖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Saint-Exupéry의 飛行하는 行動自體의 沒入은 그에게 많은 명상의 기회를 주었고, 그 명상은 술한 긍정적 모랄과 思想을 낳아 정립되도록 하였다.³⁷⁾ 완전히 人間의 세계를 떠나 高空을 飛行하는 機體 안에서 Saint-Exupéry를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역시 人間이며, 人間의 문제였다. 따라서 그는 목숨을 걸고 자연에 도전하면서도 個人的인 문제는 度外視하고 人間 전체의 基本的이고 原則的인 문제의 追求에 沒入한 나머지, 人間 사이의 友情을 극

34) Ibid., p. 256.

35) Ibid., p. 139.

36) R.M. Albérès, Saint-Exupéry, Editions Albin Michel p. 10.

도로 美化하여 찬양하고, 나아가 人間은 人間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의식을 人間관계에 있어서의 한 結論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그래서 不安과 恐怖와 孤獨의 時代를 背景으로 하여 Saint-Exupéry 와 거의 동시에 태어난 A. Malraux 의 行動이 革命性을 갖는 데 반하여 그의 行動은 和解와 사람의 감정으로 충만된 詩로 變貌되어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Saint-Exupéry: oeuvr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Saint-Exupéry: Lettres à sa mère, paris Gallimard.
 R.M. Albérès: Saint-Exupéry, Editions Albin michel
 Saint-Exupéry: Lettres de jeunesse, paris Gallimard.
 Luc Estung: Saint-Exupéry par lui-même, Editions du Seuil.
 P.H. Simon: L'homme en procès, A la Baconnière
 J.C. Ibert: Saint-Exupéry, Editions universitaires.
 Jules Roy: Passion de Saint-Exupéry, Paris Gallimard.
 André-A. Devaux: Saint-Exupéry, Desclée de Brouwer.
 Pierre chevrier: Saint-Exupéry, Paris Gallimard.
 Pierre de Boisdeffre: Les écrivains français d'aujourd'hui,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G. Mounin: Les critiques de notre temps et Saint-Exupéry, Garnier.